GIST, 창업의 도전과 경험 나누는 '2026 스타트업나이트' 개최

- 19일 GIST 오룡관서 대학생·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관계자·일반인 등 참여해 창업 경험과 아이디어 공유
- ㈜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특강부터 아이디어톤·창업팀 전시·국내외 시장 검증 성과 공유까지



▲ 11월 19일 GIST 오룡관에서 열린 '2026 GIST 스타트업나이트' 행사 전경.

광주과학기술원(GIST·지스트, 총장 임기철)은 **11월 19일(목) 18시 GIST 오룡관에서 호남권 대학생과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관계자, 일반인** 등이 **창업 경험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'2026 GIST 스타트업나이트**(Start-Up Night)**'를 개최**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**11월 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'2026 GIST 과학기술문화 페스타'의 일환**으로, 학생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**대학 구성원과 지역민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**됐다.

GIST 창업혁신진흥원이 주최하고 텍스코어·GIST 앵커사업단·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(KENTECH)·전남대학교 실험실특화형창업선도대학사업단·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·국립목포대학교 앵커사업단 등 **호남권 대학이 주관**했다.

올해 행사는 **'개척**(Groundbreak)**·세대**(Generation)**·기대**(Expectation)**'를 핵심 키워드**로, **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미래를 이끌어 갈 세대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**를 담았다.

참가자들이 창업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▲선배 창업가 특별강연 ▲아이디어톤·도전창업골든벨 ▲창업팀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.

먼저 **GIST 학생 창업기업으로 출발해 2024년 6월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성장한 ㈜에스오에스랩의 정지성 대표**가 '미래 산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스타트업으로 연결하는 법'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.



▲ ㈜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가 '미래 산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스타트업으로 연결하는 법'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.

정 대표는 **인공지능**(AI) **시대에 대학(원)생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**를 화두로, 창업 초기부터 기술개발과 사업화, 코스닥 상장에 이르기까지 **에스오에스랩의 성장 과정과 경험**을 소개했다.

특히 눈앞의 유행이나 시장 흐름을 좇기보다 **10~20년 뒤의 미래를 내다**보고, **깊이 있는 연구와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**하다고 강조했다. 이를 바탕으로 **미래 산업의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는 기술창업의 방향**을 제시했다.

이어 **사전등록자를 대상으로 아이디어톤과 도전창업골든벨**이 진행됐다. 아이디어톤에서는 참가자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발전시키는 시간을 가졌다. 두 프로그램의 우수 참가자에 대한 시상도 이뤄졌다.



▲ '2026 GIST 스타트업나이트'에서 아이디어톤 및 도전창업골든벨 수상자들이 GIST 임기철 총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또한 GIST가 운영하는 **'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**(텍스코어, TeX-Corps)'에 참여한 9개 탐색팀이 **국내외 실전교육을 통해 얻은 성과를 포스터로 전시**해 참가자들과 공유했다.

텍스코어는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**창업을 준비하는 팀들이 실제 고객을 만나 기술의 시장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사업**이다.

올해 참여한 9개 팀 중 **6개 팀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**(UC Berkeley)**에서 3주간 현지 실전교육**을 받았다. 참가팀들은 국내외 시장탐색 과정에서 잠재고객을 만나 시장 수요를 확인하고, 이를 바탕으로 **사업모델과 시장 진입 전략을 구체화한 성과 등을 소개**했다.



▲ '2026 GIST 스타트업나이트' 참가자들이 창업팀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.

행사장에는 **GIST 소속 창업동아리·창업팀 6개 팀**과 **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·전남대학교·조선대학교·국립목포대학교의 창업팀 4개 팀**, **연합 창업팀 2개** 팀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하는 전시부스가 마련됐다. 참가자들은 각 팀의 창업 아이디어를 살펴보고 직접 교류했다.

GIST 창업혁신진흥원 김재관 원장은 "각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연구성과가 새로운 시장과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뿐 아니라 **사람과 시장을 연결하는 교류의 기회가 중요**하다"며 "이번 스타트업나이트 행사를 계기로 **학생과 연구자들이 창업의 가능성을 발견**하고, **창업팀들이 새로운 협업과 사업화 기회를 모색**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이어 "앞으로도 전남대, 조선대, KENTECH, 국립목포대 등 **호남권 대학과 협력해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**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